

고부갈등에 있어서 자기통제력, 탓 및 적응과의 관계

Conflict with Mothers-in-law, Self-efficacy, Blame, and Adaptation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 鄭 慧 貞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Instructor : Hyejeong Chung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 徐 炳 淑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Prof. : Kyong Sook Seo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 론

참고문헌

= ABSTRACT =

Based on the Double ABCX model of family stress and adaptation,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correlations among and the relative magnitude of variables associated with different levels of adaptation to conflict with mothers-in-law reported by daughters-in-law. Frequency of conflict was selected as a stressor(aA). Resource factor(bB) in this study was self-efficacy. Four types of blame(self-behavior, self-character, other people, and impersonal world blame) were selected as perception factors(cC). The adaptation factors(xX) were the level of daughter-in-law'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arital adjustment.

Data for this research were questionnaire responses from 151 daughters-in-law who lived in Seoul.

The results of correlational analyses indicated that most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In addition, results of the path analysis on daughter-in-law's psychological well-being indicated that higher scor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a) greater self-behavior blame for the conflict, and(b) less ascription of blame to the impersonal world. Frequency of conflict influenced psychological well-being indirectly through self-behavior blame and impersonal blame, both of which were also found to mediate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However, although all independent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arital adjustment, no variables had direct effects on marital adjustment.

I. 서 론

고부갈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족문제중의 하나로써, 많은 여성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고부갈등에 관한 한 선행 연구는 정신과에 입원하고 있는 여성환자들의 경우, 34%의 며느리와 43%의 시어머니가 고부갈등이 원인이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광일, 남정현, 1978). 고부갈등은 또한 부부싸움을 유발하기도 하며(고정자, 1989), 여성의 결혼만족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이경애, 1984; 박영숙, 1987; 유가효, 1976). 더우기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혼을 하게되는 주된 요인이 시댁과의 문제에 있다는 보고도 있다(이광규, 1981).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보아 고부갈등은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경험하는 주요한 스트레스원으로서 여성의 심리적 복지 및 결혼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발표된 고부갈등에 관한 논문은 갈등의 여러가지 원천, 갈등시의 중재자, 고부갈등이 다른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갈등의 표출방법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과거에 주로 사례연구나 일화, 소설, 혹은 민요등을 통해서 묘사되었던 고부갈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그 공헌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고부갈등이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복지 및 결혼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서술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스트레스원인 고부갈등이 여성의 심리적 긴장 및 부부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거나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과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고부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고부갈등이 여성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복지와 결혼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자원을 사용할 것인가 또는 기타 다른 긍정적인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밝혀내

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한 과제이다.

비록 고부갈등이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목되어 왔지만, 고부갈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모든 여성들이 반드시 심리적 스트레스나 부부문제를 경험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고부관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여성이 있는 반면에 고부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긴장에 대처를 잘 하거나 적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족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Double ABCX모델(McCubbin & Patterson, 1983a, 1983b; McCubbin & McCubbin, 1989)을 기초로 하여 하나의 스트레스원으로서 고부갈등과 이에 대한 적응 및 이를 중재하거나 완화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Double ABCX모델에 의하면, 가족내에서 스트레스원의 축적(aA요인)에 대한 적응(xX요인)수준은 스트레스원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이나 가족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bB요인)과 전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가족의 지각, 혹은 평가(cC요인)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데, aA요인인 스트레스원은 이혼이나 낙태등과 같은 분명한 생활사건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고부갈등과 같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긴장이 누적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개인적 자원중의 하나인 자기통제력(self-efficacy; bB)과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대한 일종의 평가인 탓(blame; cC)이 스트레스원인 고부갈등 및 이에 대한 적응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이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복지 및 결혼적응 수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과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을 규명하여,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여성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는 시모와 며느리를 모두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며느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고부갈등(스트레스원)

고부갈등은 우리나라 가족의 병리적인 현상 중의 하나이다. 고부갈등의 원인은 전통적인 우리나라 가족의 구조적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가족은 대표적인 부계가족으로서, 여성의 지위는 결혼 후에 혼입한 가족에서 아들을 낳음으로써 확립되고 향상되었다. 따라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정성과 애정은 특별히 깊었고, 모자관계는 특별히 밀착되고 강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특수한 모자관계는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 고부간의 관계를 불화적인 것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이광규, 1981, 1982; 유영주, 1984).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배적인 가치성향은 고부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Chung, 1992). 한국인의 대표적인 가치성향은 집단주의,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가족중심적 집단주의로 묘사되어 왔다(최재석, 1964; Kim, 1989; Steinberg, 1989).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필연적이며 때로는 필요한 것(Chafetz, 1981)이라고 한다면, 갈등의 정도와 빈도는 한 사람이 타인의 생활과 접촉하거나 관여하는 정도에 달려있을 것이다. 즉, 고부가 접촉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그리고 고부가 서로의 생활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이 두 사람간의 갈등의 정도는 더 높을 것이다. 타인의 생활에 대해 한 개인이 관여하는 정도는 사람의 가치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개인주의자는 타인의 생활에 대해 관심을 덜 보이거나 덜 관여하는 반면에, 집단주의자는 소속집단의 복지와 조화를 위해 소속집단 내의 다른 사람의 생활에 더 많이 관여하려고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하는 경향이 강하다(Hui & Triandis, 1986; Triandis, McCusker, & Hui, 1990). 따라서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집단주의적 가치성향을 지닌 우리나라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의 생활에 더 많이 관

여하려하거나 관심을 보일 것이며, 그 결과 두 사람간의 갈등은 더 빈번하거나 심할 것이다(Chung, 1992).

근대 이전의 우리나라 가족에서, 비록 고부갈등이 존재하였지만, 이는 시어머니의 요구와 간섭, 지시, 학대 등에 의하여 며느리는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통례이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유교윤리는 시어머니의 지시와 명령에 대해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참고 복종할 것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유교윤리의 약화와 개인주의, 평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서구적 가치의 도입으로 인해, 전통적인 유교윤리를 간직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서구적 가치관이 도입된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주로 생활해 온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보다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고부는 자녀양육 및 가정관리와 같은 다양한 가정문제에 대하여 가치관 및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였고 유교윤리의 약화로 인하여 고부관계는 상하 질서가 혼란하게 되어, 고부간의 갈등은 보다 빈번하고, 다양하며, 심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부갈등은 현대 우리나라 가족의 대표적인 문제중의 하나로서, 개인의 심리 및 정신질환, 노인문제 및 부부문제의 직접적 및 간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이광규, 1981; 유영주, 1984).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여성의 정신적 질환, 부부싸움 및 결혼부적응이 고부갈등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고부갈등은 우리나라의 기혼여성들이 경험하는 주요한 스트레스원 중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고부갈등에 관한 논문은 고부갈등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빈도와 강도(심각도), 그리고 기간을 구분하여 측정하지 않았는데, Double ABCX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고부갈등이 발생한다는 자체와 고부갈등을 심각하게 느낀 정도는 구분되어야 한다. 즉, 여러가지 고부갈등원이 발생한 빈도나 고부갈등이 지속된 기간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aA요인인 스트레스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부갈

등을 심각하게 지각한 정도는 cC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다양한 고부갈등원이 발생한 빈도를 스트레스원으로 간주하여 연구하였다.

2.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과정에서 중요한 개인적 자원 중의 하나는 개인의 생활환경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판단이다. 이러한 믿음은 숙달감(mastery : Pearlin & Schooler, 1978), 통제력(controllability : Abramson et al., 1978), 혹은 자기통제력(self-efficacy : Bandura, 1977)과 같은 용어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는데, 스트레스 과정에 있어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믿음은 다양한 요구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McCubbin & McCubbin, 1989).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문헌에서와 같이, 지배감이나 통제력이라는 용어보다 자기통제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Bandura(1982)에 의하면 자기통제력은 특정한 상황에 직면하여 일정한 수준의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과 관계된다. 자기통제력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경험에 직면할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울일 수 있을 것이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된다. 또한 자기통제력은 스트레스원에 대한 사회심리적 반응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원에 대처함에 있어서 스스로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결함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패에 대해서 자신의 내적 인성을 탓하고, 불안과 우울증을 심하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반대로,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자기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탓을 피하며, 불안감과 우울증을 덜 경험한다(Bandura, 1982). 그는 또한 특정 상황에 있어서 개인이 지각한 수행의 성취정도에 의해 자기통제력이 생겨나거나 사라질 수도 있고,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고부갈등이 심할 때,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무나 일을 잘 수행하지 못했

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며느리의 자기통제력은 서서히 손상될 것이다.

수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적응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자기통제력을 적용하여 왔다. 이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과는 사람들이 지각한 자기통제력은 심리 사회적 기능의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O'Leary, 1985 참조). 그러나 특정한 스트레스원에 대한 자기 통제력과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들은 스트레스적인 생활경험에 대한 개인의 자기통제력은 낙태(Major et al., 1985 ; Mueller & Major, 1989 ; Major et al., 1990) 및 출산(Manning & Wright, 1983)과 같은 스트레스원에 따른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적인 생활경험에 대한 자기통제력과 적응과의 관계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부부갈등에 대한 통제력을 조사함에 있어서 Madden과 Janoff-Bulman(1981)은 부부갈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아내들이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실증적 연구들은 자기통제력과 적응과의 관계를 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자기통제력에 관한 이론적 관점은 스트레스적인 생활경험의 정도(강도나 빈도의 양측면에 있어서)가 자기통제력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스트레스적인 생활경험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그 강도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더우기 자기통제력에 관한 이론적 견해는 자기통제력과 탓이 상호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개인이 스트레스적인 생활경험에 접할 때,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일어난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스트레스적인 사건을 탓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다. 설혹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원을 탓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수정이나 통제가 쉬운 자신의 행동에 탓의 초점을 맞출 것이고 자신을 괴롭히는 탓을 피할 것이다. 반대로,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개인적인 결함과 비교적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을 더 많이

탓함으로써, 결국 부적응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원의 정도와 자기통제력의 관계 및 자기통제력과 탓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기초로 하여, 고부갈등 발생과 그에 대한 며느리들의 자기통제력, 그리고 자기통제력과 탓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자기통제력이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3. 탓

탓(blame)은 스트레스적인 생활경험에 대하여 잘못의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흔히 이루어지는 반응이다(Janoff-Bulman & Lang-Gunn, 1986). 탓은 스트레스원에 대하여 개인이 자신의 취약성 정도를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Timko & Janoff-Bulman, 1985), 이는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 혹은 평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Double ABCX모델의 cC요인으로 간주된다(Chung, 1992). 사람들이 스트레스원에 대하여 돌릴 수 있는 탓의 대상은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 타인, 그리고 인간외적인 요인 등과 같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탓, 특히 자기탓(self-blame)이 스트레스원에 대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즉, 적응적인 기제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즉, 부적응적인 기제인지)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한 연구 집단은 스트레스원에 대한 자기탓은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적인 생활경험을 자기 탓으로 돌림으로써 개인이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함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ulman & Wortman, 1977; Langer & Rodin, 1976; Schulz, 1976).

그러나 이와 같이 자기탓이 적응기제라는 관점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Beck(1967)과 같은 우울증 이론가는 자기탓을 우울증 증상으로 간주하였다. 이 관점은 자기탓은 스트레스원에 대한 심리적 적응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탓에 대한 이러한 두가지 상반되는 견해를 조정하려는 시도로 Janoff-Bulman(1979)은 자기탓을 행동적 자기탓, 혹은 자기행동 탓(behavioral self-blame, or self-behavior blame, 이하 자기행동 탓이라 부름)과 성격적 자기탓, 혹은 자기성격 탓(characterological self-blame, or self-character blame, 이하 자기성격 탓이라 부름)이라는 두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자기행동 탓은 스트레스원에 대하여 개인이 자기의 행동을 탓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자기성격 탓은 스트레스원의 발생에 대해 개인이 자기의 성격을 탓하는 것이다.

자기행동 탓과 자기성격 탓의 차이는 탓의 요인에 대하여 개인이 지각한 자기통제력(self-efficacy)과 관계가 있음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성격은 행동보다 더욱 고정적이어서 수정과 통제가 더욱 어렵다. 그래서 스트레스적인 경험에 대하여 성격을 탓함은 그러한 경험을 개인이 통제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기자신을 성격적으로 탓하는 사람은 비교적 수정과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간주된 개인의 몇가지 성격적 결함때문에 스트레스원이 발생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무력감과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다(Seligman, 1975). 이와 반대로, 행동은 성격에 비해 수정과 통제가 비교적 더 가능하다. 스트레스적인 경험에 대하여 개인의 행동을 탓함은 그러한 경험이 앞으로 발생하는 것을 개인이 통제할 수가 있으며, 반드시 재발한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Peterson, Leigh, & Day, 1981). 자신의 행동을 탓하는 사람은 앞으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함으로써, 스트레스적인 사건의 재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따라서 무력감이나 우울증보다도 자기통제력을 갖게 됨으로써, 스트레스적인 경험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보다 잘 적응할 것이다.

자기행동 탓과 자기성격 탓의 구분은 자기탓이 적응기제인지의 여부에 관한 논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자기행동 탓은 적응적으로, 즉 적응을 보다 잘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왜냐하면 개인이 스트레스원에 대하여 자기행동을 탓할 때, 이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수정함으로써 그 사건을 통제할 수 있으며, 그 생활경험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않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자기성격 탓은 부적응적으로, 즉 적응을 잘하지 못하며 우울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왜냐하면, 자기성격 탓은 자신의 성격적 결함이 스트레스원의 원인이라고 믿음으로써, 스트레스원에 대하여 개인이 취약하다는 판단과 통제력을 차단하며, 따라서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자아존중감이 낮게 되며, 무력감을 지각할 것이기 때문이다(Abramson et al., 1978).

다른 한편으로, 타인이나 인간외적 요인은 비교적 개인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타인이나 인간외적 요인을 탓함은 스트레스원에 대하여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탓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성격 탓의 형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원에 대하여 타인, 혹은 상황, 운명과 같은 인간외적 요인을 탓함은 그러한 경험이 개인의 통제로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분명히 무력감 및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기행동 탓과 자기성격 탓을 구분한 실증적 연구들은 낙태(Major, Mueller, & Hildebrandt, 1985; Mueller & Major, 1989), 강간(Meyer & Taylor, 1986), 유방암(Timko & Janoff-Bulman, 1985), 화상(Kiecolt-Glaser & Williams, 1987), 문제가 있는 아기의 출산(Tennen, Affleck, & Gershman, 1986), 남편의 폭력(Andrews & Brewin, 1990)와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있어서 자기성격 탓은 높은 우울증 및 낮은 사회심리적 적응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반면에 자기행동 탓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치할 보지 못하고 있다. 자기행동 탓과 적응이 긍정적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한 연구들(Peterson et al., 1981; Tennen et al., 1986; Timko & Janoff-Bulman, 1985)도 있는 반면에, 아무 관계가 없음을 발견한 연구(Janoff-Bulman, 1979; Major et al.,

1985; Mueller & Major, 1985)도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를 발견한 연구(Kiecolt-Glaser & Williams, 1987; Meyer & Taylor, 1986)도 있다. 이외에도, 배우자와 같은 타인을 탓함은 적응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었다(Madden & Janoff-Bulman, 1981; Mueller & Major, 1989; Tennen et al., 1986; Timko & Janoff-Bulman, 1985).

이상의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기혼여성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원중의 하나로 간주되는 고부갈등 연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부갈등에 대하여 며느리가 자기 성격을 탓할 경우,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며느리가 고부갈등에 대해 자기자신을 성격적으로 탓함은 자신의 성격적 결함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자신을 심하게 비평할 것이고 고부갈등을 겪어서 마땅하다는 감정과 무력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성격은 변화시키기가 비교적 어려우며, 자신의 성격이 고부갈등을 유발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고부갈등에 대한 며느리의 자기행동 탓은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자기자신을 행동적으로 탓하는 며느리는 앞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고부갈등의 재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갈등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나 남편과 같은 타인, 혹은 상황이나 운명과 같은 인간외적 요인을 탓할 때, 며느리는 이 요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비교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부갈등시 무력감과 그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이나 인간외적 요인을 탓함은 낮은 수준의 적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4. 적응(심리적 복지 및 결혼적응)

Double ABCX모델에서 xX요인인 적응은 스트레스원인 누적된 요구에 반응하여 가족이 균형을 이룸을 의미한다. 가족의 균형은 가족원 개인체계, 가족체계, 지역사회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데, 여기서 적응은 이 체계들간에 요구와 능력간의 균

형을 이루는 상호관계에 의해 성취된다. 반대로 이 체계들간에 요구와 능력이 불균형을 이룰 때 가족 스트레스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고부갈등이라는 스트레스원이 기혼 여성들의 심리적 문제와 부부문제라는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xX요인으로 심리적 복지와 결혼적응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심리적 복지라는 개념은 다차원적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의 네가지 차원을 포함한다(Liang, 1985) : (1)일치(congruence)는 생활의 만족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한 사람의 생활이 만족스럽거나 기대했던 목표를 성취한 정도를 나타낸다 (2)행복(happiness)은 긍정적인 감정적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3)긍정적 감정(positive affect)은 인지적인 판단이라기 보다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느낀다는 감정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4)부정적 감정(negative affect)도 또한 일시적이지만 불안, 우울, 동요, 걱정, 비판 그리고 기타 다른 심리적 질환 증상을 말한다. 심리적 복지를 나타내는 이상의 네가지 차원은 상호연관되어 있다. 결혼적응은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과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가정생활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한 정도, 갈등해결 능력, 그리고 응집성 및 의사소통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5.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자기통제력과 닳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원 중의 하나로 보이는 고부갈등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1. 고부갈등 빈도, 자기통제력, 닳, 심리적 복지 및 결혼적응 수준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

[연구가설 1a] 고부갈등 빈도는 자기통제력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모든 형태의 닳(자기행동, 자기성격, 타인 및 인간외적 요인 닳)의 정도와 정

적인 상관관계를, 그리고 심리적 복지 및 결혼적응 수준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1b] 자기통제력은 모든 형태의 닳의 정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그리고 심리적 복지 및 결혼적응 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1c] 자기행동 닳은 심리적 복지 및 결혼적응 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1d] 자기성격 닳, 타인 닳, 인간외적 요인 닳은 심리적 복지 및 결혼적응 수준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가설을 토대로 본 연구는 변인들간의 인과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마지막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가설 2. 고부갈등 빈도, 자기통제력, 그리고 4가지 형태의 닳이 심리적 복지 및 결혼적응 수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과 직접적 및 간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연구가설 2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부갈등 및 자기통제력이 심리적 복지 및 결혼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닳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통제력과 닳은 고부갈등과 적응간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그림 1은 연구가설 2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자료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남편과 시모가 모두 있는 며느리를 대상으로 199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집되었다. 자료의 수집과정은 서울시에 소재한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부모 및 조모가 모두 있는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회수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사는 거주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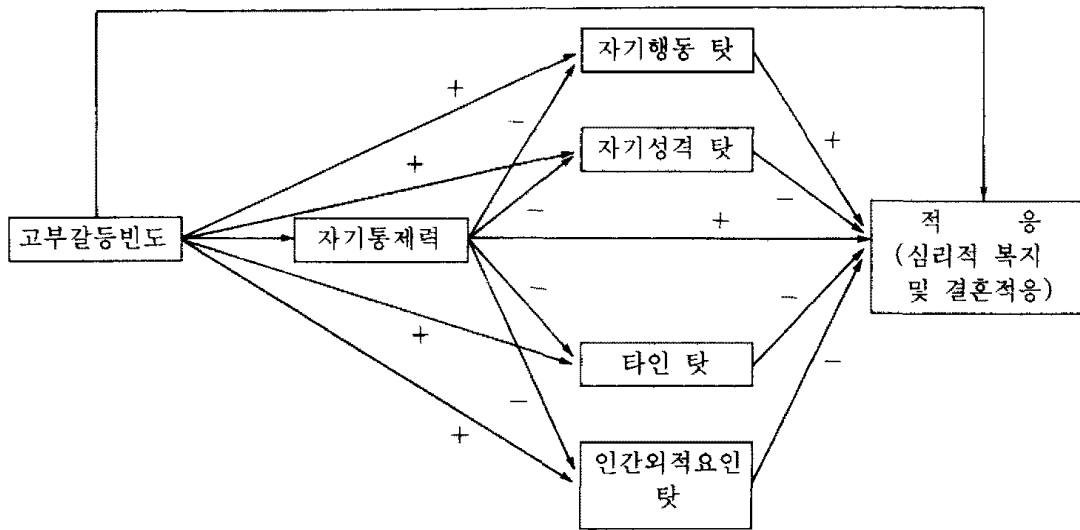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가설 2 모형.

하였다. 또한 시모와 동거하는 며느리와 분가한 며느리를 똑같이 표집하도록 하였다. 전체 350매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이중에 299매가 회수되어 85.4%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안정하다고 판단되고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199매를 대상으로 하여, 이 중에 연구기간이전 3개월동안 고부갈등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151매만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삼았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8.83세($SD=7.40$)이며, 시모의 평균연령은 68.69세($SD=8.43$)였다. 시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89명(58.9%)이었고, 따로 사는 경우는 62명(41.1%)이었다. 시모와의 평균 동거기간은 11.29년($SD=6.14$)이며,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들 중 55%($n=89$)는 과거에 시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58.1%($n=86$)는 직업이 없었으며, 26.4%($n=39$)는 전일제 직업을, 14.9%($n=22$)는 시간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평균 결혼기간은 13.46년($SD=6.11$)이었다. 교육수준은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50.9%, $n=76$)가 대졸 이상이었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자의 남편의 형제 순위는 장남이 19.9%($n=30$), 차남이 37.1%($n=56$), 그리고 삼남이 22.5%($n=34$)의 순서였다.

2. 척도

본 연구에서 분석된 변인들의 척도는 연구자의

선행연구(Chung, 1992)를 위하여 수집되었던 설문지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설문지의 첫부분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원으로 선택된 고부갈등은 선행연구(송유경, 1987; 유가효, 1976; 이기숙, 1985; 이정연, 1990)에서 제시한 고부갈등원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20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고부갈등원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객관적인 갈등의 발생(스트레스원)과 갈등을 심각하게 느끼는 정도(스트레스원에 대한 지각 혹은 평가)를 명확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결점이 있다. 스트레스원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비교적 객관적인 사건(이 경우에 있어서 고부갈등)의 발생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원으로서의 고부갈등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20가지 갈등원의 각각이 연구기간을 중심으로 지난 3개월동안 발생한 빈도를 측정하였다. 응답 범위는 7(거의 매일 그렇다)부터 1(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고부갈등 빈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였다.

자기통제력은 Pearlin과 Schooler(1978)가 개발한 척도를 약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자기통제력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고부갈등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자기통제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는 자기통제력 판단은 행위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한 상황의 견지에서 자기통제력이 측정되어야 한다는 Bandura (1982)의 주장을 기초로 하였다. 자기통제력은 5점 척도로, 즉 5(확실히 동의함)에서 1(확실히 동의하지 않음)까지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 자기통제력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네가지 형태의 탓은 Janoff-Bulaman(1979)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자기행동 탓 및 자기성격 탓은 각 1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고부갈등에 대하여 응답자가 자신의 행동 혹은 성격을 탓한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타인 탓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고부갈등에 대하여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시누이와 같은 그외의 다른 사람을 탓한 정도로 측정되었다. 세 문항으로 구

성된 인간외적 요인에 대한 탓은 시모와의 갈등에 대하여 응답자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운명,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족구조를 탓한 정도를 가리키게 함으로써 측정되었다. 이 모든 형태의 탓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식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심리적 복지 척도는 Liang(1985)이 심리적 복지의 다양한 차원들간의 상호관계를 하나의 통합된 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한 심리적 복지 측정 모델에 포함된 14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가 지난 3개월동안 동의하는 정도를 1(확실히 동의하지 않음)에서 5(확실히 동의함)까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 심리적 복지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였다.

결혼적응 정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된 Locke-Wallance Marital Adjustment Test(MAT: Locke & Wallace, 1959)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MAT를 단순화시켜서 각 문항의 응답범위를 0에서 5까지로 제한한 Hunt(1978)의 응답체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결혼적응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였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부갈등 발생빈도	3.98 (18.60) ^a	1.94 (18.99) ^a
자기통제력	22.80	4.77
자기행동 탓	1.69	1.30
자기성격 탓	1.68	1.30
타인 탓	7.90	5.16
인간외적요인 탓	5.61	3.74
심리적 복지	41.01	8.94
결혼적응	42.35	7.95

a: 자료가 제공된 형태로 변형되기 전의 통계치

IV. 연구결과

가설 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등을 산출하였다(표 1).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부갈등 발생의 빈도는 정적인 편포(positive skewness)를 보였다. 편포를 보인 변인의 자료 분석에 관하여 Tabachnic과 Fidell(1983)이 제안한 바대

표 2.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2	3	4	5	6	7	8
1. 고부갈등	-.40***	.42***	.44***	.55***	.59***	-.23**	-.25***
2. 자기통제력		-.25***	-.33***	-.39***	-.42***	.15*	.25**
3. 자기행동타			.76***	.67***	.76***	-.02	.16*
4. 자기성격타				.65***	.72***	-.05	-.26***
5. 타인타					.84***	-.18*	-.22**
6. 인간외적요인타						-.23**	-.28***
7. 심리적 복지							.39***
8. 결혼 적응							

***p<.001 **p<.01 *p<.05

로, 고부갈등 발생 빈도에 관한 자료는 제곱근 형태로 변형(square root transformation)시켜 사용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의 산출과 경로분석이 실시되었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표 2), 대부분의 가설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고부갈등 빈도는 자기통제력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모든 요인에 대한 타의 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그리고 심리적 복지 및 결혼적응 수준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기통제력은 고부갈등에 대해 타하는 정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적응수준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인간외적 요인을 타하는 정도는 심리적 복지 및 결혼적응 수준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자기행동 타과 자기성격 타이 예상한 방향으로 결혼적응 수준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심리적 복지와는 무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경로분석의 결과(그림 2, 표 3, 4), 심리적 복지에 가장 강력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변인은 인간외적 요인 타므로, 고부갈등에 대해 환경이나 상황, 사주팔자 등 인간외적인 요인을 타할수록 심리적 복지 수준은 낮았다. 자기행동 타도 또한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고부갈등 빈도와 자기통제력은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기행동 타과 인간외적인 요인에 대한 타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타인 타과 자기성격 타은 심리적 복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인들이 심리적 복지에 미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이 둘을 더한 총인과효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이들 독립변인은 심리적 복지의 총변량의 13%를 설명하고 있다.

독립변인군이 결혼적응의 총변향을 설명하고 있는 비율은 13%로 심리적 복지를 설명하는 변량의 비율과 같지만, 결혼적응 수준에 유의미한 인과적 효과를 갖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간외적 요인 타이 결혼적응 수준에 미치는 인과효과는 유의수준에 접근했다($\beta = -.25, p < .10$). 그러나 모든 독립변인들이 결혼적응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가족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Double ABCX모델(McCubbin & Patterson, 1983, 1989)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스트레스원인 고부갈등과 스트레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적 자원중의 하나인 자기통제력, 고부갈등이라는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인 타, 그리고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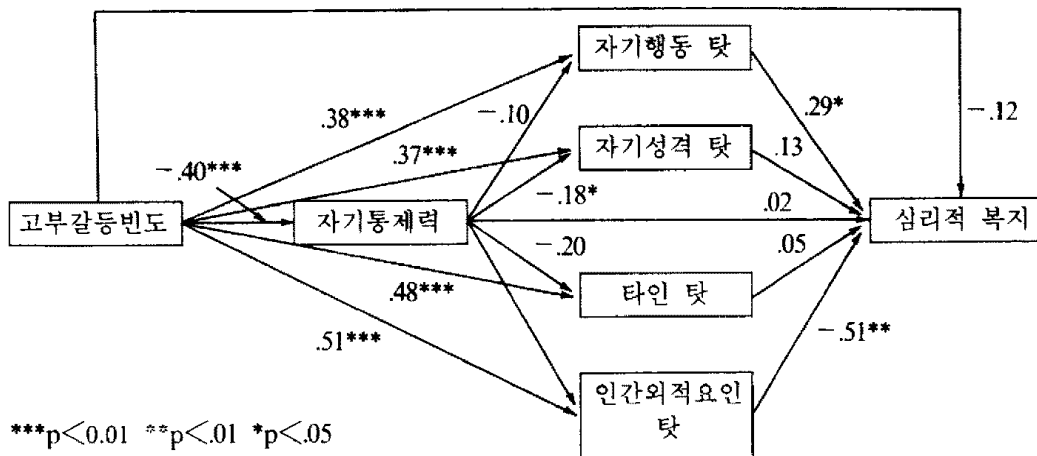


그림 2. 심리적 복지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표 3. 자기통제력, 닳, 심리적 복지 및 결혼적응에 관한 경로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F(1,149)	
자기통제력	고부갈등빈도	-.40	28.59	r ² = .16 F(1,149) = 28.59***
	자기통제력	.38	21.45***	R ² = .18
자기행동닳	고부갈등빈도	-.10	1.57	F(2,148) = 16.49***
	자기통제력	.37	21.22***	R ² = .21
자기성격닳	고부갈등빈도	-.18	5.08*	F(2,148) = 20.64***
	자기통제력	.48	40.71***	R ² = .33
타인닳	고부갈등빈도	-.20	7.24*	F(2,148) = 36.79***
	자기통제력	.51	52.16***	R ² = .39
인간외적요인닳	고부갈등빈도	-.21	9.17**	F(2,148) = 47.01***
	자기통제력	-.12	1.52	
심리적 복지	자기통제력	.02	.06	F(6,144) = 3.57*
	자기행동닳	.29	4.44*	R = .36
	자기성격닳	.13	1.01	R ² = .13
	타인닳	.05	.12	
	인간외적요인닳	-.51	8.19**	
결혼 적응	고부갈등빈도	-.09	.76	
	자기통제력	.12	1.94	F(6,144) = 3.47*
	자기행동닳	.19	1.95	R = .36
	자기성격닳	-.21	2.64	R ² = .13
	타인닳	.09	.38	
	인간외적요인닳	-.25	3.00	

***p<.001 **p<.01 *p<.05

표 4. 심리적 복지에 대한 독립변인군의 인과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 효과
심리적 복지	고부갈등빈도	--	.11(자기행동닳경유) -.26(인간외적요인 닳 경유) -.05(자기통제력 및 인간외적요인 닳 경유)	-.20
	자기통제력	--	.11(인간외적요인 닳 경유)	.11
	자기행동닳	.29		.29
	인간외적요인닳	-.51		-.51

***p<.001 **p<.01 *p<.05

변인으로서 심리적 복지와 결혼적응과의 상관관계 및 이 변인들이 적응수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기초분석으로 실시한 고부갈등 발생빈도가 정적인 편포를 보인 결과는 논의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빈도분포를 보인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고부갈등 발생빈도를 측정

함에 있어서, 본 연구가 표준적인 갈등원만을 제시하여, 모든 응답자가 동일한 갈등원에 응답하도록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고부갈등원은 선행연구, 특히 이기숙(1985)의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22개 항목(본 연구는 이 중에 20개 항목만 채택함)은 전체 74개 항목의 총변량의 50%만을

설명하였다. 이 결과는 요인분석 결과 채택되지 않은 나머지 52개 항목이 고부갈등원의 나머지 반을 나타냄을 암시한다. 이기속의 연구결과가 보여주었듯이, 본 연구도 발생가능한 수많은 고부갈등원의 반 정도만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고부갈등원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이다. 한가지 갈등원만을 오랫동안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여러가지 갈등원을 가끔씩만 경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완전한 고부갈등원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보다 완전한 고부갈등원을 제시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연구는 연구자에 의해 제공되는 표준적 갈등원과 그외에 응답자 개인이 경험하는 고유한 갈등원을 동시에 측정해야 할 것이다.

가설검증 결과에 의하면 예측된 바와 같이 고부갈등이 빈번히 발생할수록 고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통제력 수준은 낮았고, 고부갈등의 발생에 대하여 자기행동이나 성격, 시어머니 혹은 남편 등과 같은 타인, 그리고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족구조 등과 같은 인간외적 요인을 탓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한 후에 원인을 찾고 설명하고, 예측, 통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요인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는 귀인이론의 전체(Kelley, 1972)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스트레스원의 발생빈도나 혹은 스트레스원에 대해 지각된 심각성의 정도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탓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oltzworth-Munroe, 1988)는 관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고부갈등 빈도는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는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즉, 고부갈등이 빈번할수록 인간외적인 요인을 탓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이는 심리적 복지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고부갈등이 빈번할수록 자기 행동을 탓하는 정도는 높았으나, 이는 심리적 복지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고부갈등의 빈도가 높을 때, 비교적 개인의 능력으로 수정과 통제가 가능한 요인인 자신의

행동을 탓함은 심리적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개인의 힘으로 변화시키기가 비교적 어려운 인간외적인 요인을 탓함은 심리적 복지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자기통제력은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인간외적 요인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고부관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간외적 요인을 탓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이는 결국 심리적 복지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복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간외적인 요인에 대한 탓이며, 그 다음은 자기행동 탓이다. 고부갈등 빈도 및 자기통제력은 심리적 복지에 대해 인과효과를 나타냈지만 이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성격 탓은 적응수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택한 특정한 스트레스원의 성질에 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 Miller와 Porter(1983)가 주장하였듯이, 적응에 대한 탓의 역할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스트레스원의 종류를 구분함은 중요하다. 즉, 분명하고 상처가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사건이나 긴장이 연구의 초점이 될 때, 자기성격 탓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해 질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성격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부갈등이 자신의 독립적인 성격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어떤 며느리는 이러한 독립적 성격을 긍정적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또 다른 며느리는 부정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 볼 때, 자기성격 탓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단정지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모든 독립변인이 결혼 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결혼적응 수준에 직접적인 인과적 효과를 나타내는 독립변인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결혼적응과의 관계를 평가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독립변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McDonald(1985

: 17)가 지적하였듯이, “상관계수보다도 회귀계수로부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보다 더 분명하게 추론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수학적 기초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선택된 독립변인군은 결혼적응을 설명함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고부갈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고부갈등이 부부간의 문제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으나, 이 연구결과는 중다회귀분석과 같은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아니라 교차표 분석 등 일차적인 분석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도 결혼적응에 인과적 효과를 미치는 독립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의 견지에서 볼 때, 결혼적응은 적절한 종속변인이 아닐 수 있다. 자기통제력 및 닳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개인 수준, 즉, 우울증이나 무력감, 혹은 심리적 복지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개인의 응답을 분석 단위로 택하였다. 심리적 복지의 분석 단위는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분석 단위와 일치하나, 결혼적응의 분석 단위는 관계로서 선행연구와 불일치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분석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본 연구결과는 가족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Double ABCX모델로부터 유도한 개념 및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가 한국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Double ABCX모델이 제시하고 있듯이, 본 연구에서 택한 모든 변인들은 분명히 구분되지만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자료를 서울지역에 제한하여 수집하였고, 며느리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며느리의 회고를 통한 자기기술식 응답에만 의존하였다는 점, 그리고 몇 변인들은 한국인과 한국 문화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역하여 측정하였다는 점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대인관계, 특히 고부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이 대인문제에 대하여 개인의 능력으로는 수정이나 통제가 어려운 요인인 사주 팔자나 환경, 혹은 상황같은 인간외적인 요인을 닳할 때, 상담자가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가 가능한 요인인 스스로의 행동에 두게 함으로써 심리적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연구대상을 시모에게까지 적용하여 시모가 경험하는 며느리와 의 갈등에 있어서 자기통제력 및 닳의 영향은 물론이고, 고부갈등과 같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평가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처함에 있어서 인내나 순종과 같은 전통적인 윤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교육받아온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개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개인의 능력으로 통제가 가능한 많은 요인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고정자(1989). 한국 도시주부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김광일 · 남정현(1978). 정신과 입원환자에서 본 고부간의 갈등. *신경정신의학* 17(1), 27-32.
- 3) 박영숙(1987). Minuchin의 이론체계내에서의 한국 가정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송경아(1987). 고부간의 갈등원인 및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유가효(1976). 한국 도시가족의 고부갈등의 실태와 전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유영주(1984).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 7) 이경애(1981). 고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이광규(1981). 한국 가족의 심리문제. 일지사.
- 9) 이광규(1982). 한국 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 10) 이기숙(1985). 한국가정의 고부갈등 발생원에 대한 요인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1) 이정연(1990). 며느리가 인지한 고부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35-146.
- 12) 최재석(196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 13) Abrams, R.D. & Finesinger, J.E.(1953). Guilt reactions in patients with cancer. *Cancer* 6, 474-482.
- 14) Andrews, B. & Brewin, C.R.(1990). Attributions of blame for marital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3), 757-767.
- 15) Bandura, A.(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16)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17) Bulman, R.J. & Wortman, C.B.(1977). Attributions of blame and coping in the "real world" : Severe accident victims react to their lo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351-363.
- 18) Chafetz, J.S.(1981). Family conflict : The application of selected theories of social conflict to an understanding of conflict within families. *Youth and Society* 13(2), 157-173.
- 19) Chung, Hyejeong(1992). Effects of conflict with mothers-in-law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Korean daughters-in-law.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exas Tech University, Lubbock, TX., U.S.A.
- 20) Holtzworth-Monroe, A.(1988). Causal attributions of Married Couples :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8, 1398-1412.
- 21) Hui, C.H. & Triandis, H.C.(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331-344.
- 22) Hunt, R.A.(1978). The effect of item weighting on the Locke-Wallace Marital Adjustmen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249-256.
- 23) Janoff-Bulman, R.(1979). Characterological vs. behavioral self-blame : Inquires into depression and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789-1809.
- 24) Janoff-Bulman, R.J. & Lang-Gunn, L.(1988). Coping with disease and accidents : The role of self-blame attributions. In L.Y. Abramson(Ed), *Social Cognition and clinical Psychology : A synthesis* (pp.116-147). New York : Guilford Press.
- 25) Janoff-Bulman, R.J. & Timko, C.(1987). Coping with traumatic life events : The role of denial in light of people's assumptive worlds. In C.R. Snyder & C. Ford(Eds.), *Coping with negative life events : Clinical and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pp.135-159). New York : Plenum.
- 26) Kelley, H.H.(1972). Attribution and social interaction. In E.E. Jones, D.E. Kanouse, H.H. Kelley, R.E. Nisbett, S. Valins & B. Weiner(Eds.), *Attributions :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pp.1-26). Morristown, NJ : General Learning Press.
- 27) Kim, Byong-Suh.(1989). Value orientations and sex-gender role attitudes : On the compatibility of attitudes of Koreans and Americans. In *Sexual division of labor in the family and work : A comparative study of American and Korean experiences*.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era.
- 28) Langer, E.J. & Rodin, J.(1976). The effects of choice and enhanced responsibility for the aged : A field experiment in an institutional set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951-955.
- 29) Liang, J.(1985). A structural integration of the Affect Balance Scale and the Life Satisfaction Index A. *Journal of Gerontology* 40(5), 552-561.
- 30) Locke, H. & Wallace, K.(1959). Short marital adjustment and prediction tests : Their reliability and validit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 251-255.
- 31) Madden, M.E. & Janoff-Bulman, R.(1981). Blame, control, and marital satisfaction : Wives' attributions for conflict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663-674.
- 32) Major, B., Cozzarelli, C., Sciacchitano, A.M., Cooper, M.L., Testa, M. & Mueller, P.M.(1990).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abor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107.

- chology 59, 452-463.
- 33) Major, B.N., Mueller, P. & Hilderbrandt, K.(1985). Attributions, expectations, and coping with abor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585-599.
 - 34) Manning, M.M. & Wright, T.L.(1983). Self-efficacy expectancies, outcome expectancies, and the persistence of pain control in childbir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421-431.
 - 35) McCubbin, M.A. & McCubbin, H.I.(1989). Theoretical orientations to family stress and coping. In C.R. Figley(Ed.), *Treating stress in families*, (pp. 3-43). New York : Brunner/Mazel.
 - 36) McCubbin, H.I. & Patterson, J.(1983a). Family transitions : Adaptation to stress. In H.I. McCubbin & C.R. Figley.(Eds.), *Stress and the family*, Vol. I : Coping with normative transitions(pp.218-228). NY : Brunner/Mazel.
 - 37) McCubbin, H.I. & Patterson, J.(1983b). The family stress process :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6(1-2), 7-38.
 - 38) McCubbin, H.I. & Patterson, J.(1982). Family adaptation to crises. In H.I. McCubbin, A. Cauble, & J. Patterson(Eds),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Springfield, IL : Charles C. Thomas.
 - 39) McDonald, R.P.(1985). *Factor analysis and related methods*.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40) Meyer, C.B. & Taylor, S.E.(1986). Adjustment to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226-1234.
 - 41) Miller, D.T. & Porter, C.A(1983). Self-blame in victims of viol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39(2), 139-152.
 - 42) Mueller, P. & Major, B.(1989). Self-blame,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abor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59-1068.
 - 43) O'Leary, A(1985). Self-efficacy and health.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3, 437-451.
 - 44) Pearlin, L.I.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45) Peterson, G.W., Leigh, G.K. & Day, R.D.(1984). Family stress theory and the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Journal of Divorce* 7(3), 1-20.
 - 46) Seligman, M.E.P.(1975). *Helplessness :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 Freeman.
 - 47) Shaver, K.G. & Drown, D.(1986). On causality, responsibility, and self-blame : A theoretical not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697-702.
 - 48) Steinberg, D.I.(1989). *The Republic of Korea : Economic transformation and social change*. Boulder, CO : Westview.
 - 49) Tabachnic, B.G. & Fidell, L.S.(1983).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New York : Harper & Row.
 - 50) Tennen, H., Affleck, G. & Gershman, K.(1986). Self-blame among parents of infants with perinatal complications : The role of self-protective mo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690-696.
 - 51) Timko, C. & Janoff-Bulman, R.(1985). Attributions, vulnerabil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 The case of breast cancer. *Health Psychology* 4, 521-544.
 - 52) Triandis, H.C., McCusker, C. & Hui, C.H.(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06-1020.